

『여선외사女仙外史』의 유민遺民 의식

홍상훈*

【요약】

청淸 왕조 초기에 ‘유민遺民’으로 살았던 사대부 여응呂熊이 지은 장편소설 《여선외사女仙外史》는 명명 왕조 초기인 건문建文 연간(1399-1402)에 일어난 연왕燕王의 ‘정난靖難’과 영락永樂 18년(1420) 산동山東에서 당새아唐塞兒라는 여성이 주도했던 농민기의農民起義를 엮어서 허구적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작자는 연왕의 ‘정난’을 ‘찬탈篡奪’로 규정하고 당새아 집단을 ‘천자를 호위勤王’하는 충의지사忠義之士로 칭송하면서 양측의 대결을 서술했는데, 여기에 신화적 상상과 도술道術 등의 오락적 요소를 덧씌우면서 다시 천문과 지리, 병법, 법률, 경학經學, 의학醫學 등을 두루 아우르는 작자 자신의 ‘재학才學’을 과시했다.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 현대의 많은 연구에서 대개 ‘포충극반褒忠殲叛’의 윤리관과 ‘반청복명反淸復明’이라는 ‘유민’의 염원을 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작자 여응이 비록 부친의 유훈遺訓에 따라 청 왕조에서 정식으로 벼슬길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이미 안정화된 청 왕조의 ‘신민臣民’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반청복명’의 유민의식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에 따라 이 작품도 평화롭고 풍요로운 청 왕조의 치세를 위해 작자의 광범한 학식을 바탕으로 구성한 일종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한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여선외사, 유민의식, 정난, 여응, 당새아, 건문제

* 인제대학교 국제어문학부

** 본 논문은 2018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https://doi.org/10.34162/hefins.2019..23.001>

I. 들어가는 말

비교적 최근에야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¹⁾ 여웅呂熊(1642-1723, 字는 文兆, 號는 逸田叟 또는 梅隱庵)²⁾의 『여선외사』(100회)³⁾는 중국 고대소설사 서술과 청초淸初의 ‘유민문학遺民文學’ 연구에 적지 않은 부분을 보충할 만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명명 영락永樂 18년(1420)에 익도益都(지금의 山東 靑州)를 중심으로 당새아唐賽兒(1399-?)가 주도한 농민기의 를 모티브로 한 일종의 신마소설神魔小說로서, 건문建文 연간(1399-1402)에 연왕燕王이 일으킨 이른바 ‘정난靖難’ 사건을 엮어서 허구적으로 구성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⁴⁾ 작자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반란’과 ‘찬탈’의 실질을 규명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했다.⁵⁾ 이 작품은 대개 강희康熙 42년

-
- 1) 필자가 개략적으로 헤아려 본 결과, 1983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여선외사』에 관해 발표된 논문은 약 30편 남짓이고, ‘靖難’이나 여성 등 간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은 약 70편 정도, 그리고 소설사를 비롯해서 이 작품에 관해 일정 부분을 언급한 저서는 적어도 30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 2) 여기에 밝힌 생몰 연도는 劉葉秋 외(1998)에 수록된 楊鍾賢의 설명과 楊梅(2006)가 고증한 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나중에 글을 발표한 王曉明(2014)은 呂熊이 대략 1640년 무렵에 태어나 1721 무렵에 죽은 듯하다고 불확정적으로 표기했다.
 - 3) 上海古籍出版社에서 간행한 『古本小說集成』(1992)에서는 復旦大學圖書館에 소장된 康熙 연간의 鈞瑛軒 刊本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정식 명칭은 『新刻逸田叟女仙外史大奇書』이다. 이 외에도 『石頭魂』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이 판본과 더불어 王巷人·劉承武이 校點한 齊魯書社 刊本(1995)을 참조했다.
 - 4) 楊梅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작품은 구체적으로 “역사연의와 영웅전기, 신마소설, 세정소설의 여러 체제를 절충하여 혼합한 신마소설[是一部揉合歷史演義、英雄傳奇、神魔、世情的衆體皆備的神魔小說.]”이다. 楊梅(2006), p. 48. 그러나 여전히 논자에 따라서는 이 작품을 神怪의 이야기를 포함한 ‘歷史演義’라고 간주하는 경향도 있다. 王傑(2014), pp. 16-17. 한편 唐賽兒의 起義를 소재로 한 최초의 소설은 凌濛初의 『拍案驚奇』 권31에 수록된 「何道士因木成奸, 周經歷因奸破賊」이다. 이외에 ‘靖難’을 소재로 한 明·淸 시기의 소설과 희곡에 대해서는 劉鵬飛(2011)b와 劉倩(2003)에서 소개하고 있다.

(1703) 무렵에 창작되어 강희 50년(1711) 무렵에 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니, 청 왕조가 이미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한 시기에 해당한다. 오현吳縣(지금의 江蘇 蘇州) 출신의 작자는 부친의 유훈遺訓에 따라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포기한 이른바 ‘유민遺民’으로서, 청대에 들어서는 직례순무直隸巡撫 우성룡于成龍(1617-1684) 등의 막료幕僚로만 지냈을 뿐 정식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외로움을 즐기는 성품에 행동거지도 괴벽怪癖했다는 그는 결국 산림에 은거한 채 천하를 주유하면서 『시경육의詩經六義』와 『명사단明史斷』, 『속광여기續廣輿記』, 『본초석치本草析治』 등의 많은 저작을 저술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은 만년에 “평생의 학문과 심사를 모두 기탁”⁶⁾하여 당시에 이미 ‘신대기서新大奇書’로 칭송받았던⁷⁾ 『여선외사』 하나 뿐이다.

그러나 건륭乾隆 연간에서 광서光緒 연간까지 이 작품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것은 이 시기 내내 고거학考據學이 성행하면서 정치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내면을 관통하는 유민의식 — 심지어 그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변질된 것이기도 했는데 — 마저도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가 청 왕조가 멸망하고 중화민국 시기에 이르면 계몽주의자들의 이른

5) 『여선외사』 제99회 ‘回評’에서 呂熊은 “唐賽兒가 建文帝 때에 군대를 일으켰다면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제 永樂帝에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는 燕王의 신분으로 帝位를 篡奪한 자이니 뭐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그래서 이 소설에서 저 燕王 쪽은 이 唐賽兒를 ‘妖寇妖賊’으로 여기고, 唐賽兒는 燕王을 ‘逆藩逆賊’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夫使賽兒起兵于建文之世, 名之曰反, 誠然. 今起兵于永樂之時, 則彼之燕王篡位者, 當謂之何? 所以書中彼此爲‘妖寇妖賊’, 此以彼爲‘逆藩逆賊’.]”라고 했다. 呂熊 (1711), 編輯部 (1992), pp. 2289-2290.

6) 劉廷璣, 『在園雜志』 卷二 “女仙外史百回, 亦荒唐怪誕, 而平生之學問心事皆寄托于此.” 劉倩 (2003), p. 76 재인용.

7) 上海古籍出版社의 『女仙外史』에 대한 「前言」에서 章培恒은 이 작품 卷首의 評論과 品題가 모두 知府 이상의 관료에게서 나왔고, 每回 뒤편의 評語도 높은 관료나 저명한 문인, 학사, 예술가가 썼는데, 이는 중국 고대 통속소설에서 空前絶後의 현상이라고 했다. 李夢生 (1994), p. 373의 인용문 참조.

바 ‘소설계혁명’의 여파로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소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루쉰魯迅과 정전뒤顛振鐸, 선송취안沈松泉 등의 저명한 학자들이 이 작품에 대해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⁸⁾

『여선외사』는 명말·청초 유민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던 ‘정난’에 대한 비판적 논의, 특히 ‘정난’을 ‘찬탈’로 규정하는 견해를 반영하면서 ‘근왕勤王’ 즉 천자의 호위를 내세운 농민 기의군起義軍이 정통을 수호하려는 충의지사忠義之士들이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이 작품 전체의 바탕을 이루는 역사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외에도 이 작품에는 당시 유민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여성 우월론과 정치제도 개혁론, 정주이학程朱理學에 대한 비판 등등 오늘날 논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는 명말·청초의 ‘유민’과 그들의 의식,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문학의 한 예로서 『여선외사』의 성격을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신마소설’의 기본 틀 위에 역사연의歷史演義를 비롯한 다양한 체제를 융합한 이 작품의 형식적 특징이나 인물 묘사 등 예술적 측면보다는 작품의 주제 설정과 세부 서술에 나타난 작가의 의식 세계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 여웅이 작품에 투영한 명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아쉬움과 ‘반청反淸’ 감정을 바탕으로 한 분노 등의 ‘유민의 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⁹⁾ 필자는 이 부분을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명 왕조의 유민과 그들의 의식에 내재한 복잡한 심리가 형성되고 변천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민’의 마지막 세대로서 여웅이 『여선외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 역사관을 정리함으로써 이 작품이 완성과 거의 동시에, 일시적이거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면서 널리 유행하게 된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8) 이들의 연구 개황은 王傑 (2014), pp. 8-9 참조.

9) 『여선외사』를 통해 ‘靖難’과 明·淸 왕조 교체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南明’을 거론한 비교적 초기의 글로는 杜貴晨 (1995)을 꼽을 수 있다.

II. ‘유민’의 정의와 사회적 위상

1. ‘남겨진’ 혹은 ‘버려진’ 존재로서 유민

이미 『좌전左傳』을 비롯한 옛 문헌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는 ‘유민’은 처음부터 ‘나라를 잃은 백성[亡國之民]’을 의미했다.¹⁰⁾ 특히 한대漢代 이래 국가를 사회적으로 확장된 ‘집안家’으로서 규정하고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충효 윤리를 바탕으로 한 유가적 국가관이 확립됨으로써, 나라와 ‘군부君父’를 잃은 백성 — 엄밀히 말하자면 ‘사대부’에 국한되었지만 — 은 ‘집안’과 ‘아버지’를 잃은 채 남겨지거나 버려진 고아와 동등하게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이성異姓’이나 심지어 이민족에 의해 왕조가 교체되어 버린 상황이라면 새 ‘군부’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혈연적 패륜의 문제와 뒤얽혀 버림으로써 결국 ‘순절殉節’의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역사에서는 이미 송宋·원元 교체기에서 이 문제가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바 있었는데, 명·청 교체기에 새롭고 더욱 치열하게 다시 소환되었다.

물론 왕조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모든 사대부가 순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배덕자背德者라는 비판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신貳臣’들뿐만 아니라 극소수의 순절자¹¹⁾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사대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순절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런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으로 흔히 내세워진 ‘연로한 부모’의 존재¹²⁾는 청 왕조 초기 ‘유민’ 사회의 여론에서 ‘충’과

10) 『左傳』「閔公二年」에 보이는 「衛之遺民」이나 「襄公二十九年」에 보이는 「陶唐氏之遺民」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11) 기록된 바에 따르면 명 왕조를 위해 殉國한 이들은 歷代 最多로서 3,880명에 이른다고 했다. 王傑 (2014), p. 51 참조.

12) 이 외에도 遺民으로 자처하는 이들이 해명했던 생존의 이유로는 홀로 남은 어린

‘효’를 별개의 개념으로 분리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천하라는 큰 집안의 아버지로써 ‘군부’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자식을 ‘버린’ 책임을 져야 하는 비판의 대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심지어 황종희黃宗羲(1610-1695)는 군주가 천하라는 막대한 ‘산업’을 독점하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만 챙기고 손해는 모두 백성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군주를 도적이거나 원수처럼 원망하고 미워하여 ‘독부獨夫’라고 부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¹³⁾

그러나 ‘군부’의 존재가 사라지고 군왕만 남은 국가관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해서 ‘절조節操’의 문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사대부란 태생적으로 절조를 바탕으로 한 인덕仁德과 학식을 바탕으로 군주의 통치를 보조하거나 혹은 ‘제왕의 스승’으로서 올바른 통치를 인도하는 ‘군자’를 지향하도록 규정된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나라가 망한 뒤에 유지하는 ‘구차한 생존’은 수치스러운 ‘존재의 모순’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민 사회에는 다양한 방식의 의식적 추향趨向과 비상非常한 생존 방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 ‘비상’함이 또 나름의 집단적 유형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구성했다는 점은 당시 ‘유민’ 사회의 특징이기도 했다.

자녀를 돌봐야 한다든지, 누군가 남긴 글을 보존해야 한다든지, 나라의 역사를 써서 남겨야 한다든지, 심지어 國權을 회복하여 훗날의 왕을 기다려야 한다든지 하는 등등으로 다양했다.

13) 『明夷待訪錄』「原君」“以爲天下利害之權皆出於我，我以天下之利盡歸於己，以天下之害盡歸於人，亦無不可。使天下之人不敢自私，不敢自利，以我之大私爲天下之大公。(……) 今也天下之人怨惡其君，視之如寇讐，名之爲獨夫，固其所也。”黃宗羲(清)，編輯部(1985)，pp. 2-3.

‘남겨짐’은 본래 고독한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집단적인 행위가 되었을 때 진정 고독할 수 있는 이는 그들 중의 걸출한 인물밖에 없다. 그가 새 왕조에 순종하는 백성의 신분을 거절한 이상, 그리고 ‘유민 사회’의 어떤 상투적인 개념과 관념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회가 설정한 자기 경계와 해석에 구차하게 동조하지 않는 한, 그가 ‘부류[類]’의 서술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¹⁴⁾

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모든 유민을 향한 이른바 ‘지독한 미움[戾氣]¹⁵⁾’과 반불반속半佛半俗, 반속반도半俗半道, 취생몽사醉生夢死의 광망狂妄이 뒤엉킨 채 삶마저도 죽음으로 여기는 기묘한 처신¹⁶⁾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유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항목에 속하는 기개와 절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세상을 피하거나 세상과 인연을 끊는 장엄한 행위가 심지어 점차 해학으로 변해 가기도 했다. 결국 그와 같은 ‘존재의 모순’에 대한 고민은 유민의 신분이 후손에게까지 ‘세습’되지 않는다는 처절한 합의를 끌어낼 수밖에 없는, 애초부터 암묵적인 한계가 정해진 숙명적 행위이기도 했다.¹⁷⁾ 게다가 이러한 합의가 모색되던 무렵에 다른 한 편에서는 이미 ‘순국’의 의의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었다.¹⁸⁾

14) 趙園, 홍상훈 역 (2017)b, p. 76.

15) 이 어휘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趙園, 홍상훈 역(2017)a, pp. 12-18을 참조할 것.

16) 葉燮(1627-1703, 字는 星期, 號는 已畦)은 「徐侯齋先生墓誌銘」에서 徐枋(1622-1694, 字는 昭法, 號는 侯齋)이 “죽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해서 육신은 살아남았으나 마음은 죽은 것과 같아서 평생의 친척 및 벗들과 모두 관계를 끊고刻苦勉勵하며 살았다. [以死志未遂, 於是形存而志等於死, 生平戚友俱絕, 操作勤苦.]”고 했다. 趙園, 홍상훈 역 (2017)a, p. 101 재인용.

17)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趙園, 홍상훈 역 (2017)b, pp. 288-325를 참조할 것.

18) 全祖望, 『鮑崎亭集外編』권6, 「明晦溪汪參軍墓碣」 “호걸은 그저 가슴이 뚫리고 목이 잘리더라도 군주와 신하 사이의 대의에 부끄럽지 않기를 추구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도 안 될 게 없지 않은가? 그런데 굳이 나라와 군주를 따라 죽어야 하겠는가? [豪傑之士, 不過存一穴胸斷脰之念, 以求不愧於君臣大義而已, 不然遠揚而去, 又何不可, 而必以身殉之乎.]” 全祖望(淸), 編輯部(2000), p. 844.

유민 신분에 대한 시간의 침습과 그로 인한 ‘풍화風化’가 더욱 비극성을 띠는 것은 그것이 ‘세대간世代間’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 속에서 이루어질 때이다. 애초에 ‘이익을 밝히는[喻於利]’ 소인을 경멸하면서 오로지 출사出仕를 통해서만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었던 사대부의 계급성이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유민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살아야 한다는 생물적 본능 앞에 기개와 절조를 포함한 모든 계급성은 대부분 흐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자신조차 느끼지 못할 ‘변화’ — ‘변절’이 아니라 — 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유학자의 사명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이 설정한 사대부의 직분을 견지하기 위해 왕조가 바뀐 뒤에도 유민 신분을 유지한 채 민생을 보살핀다는 명분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이러한 ‘변화’ 내지 ‘적응’을 유도했다.¹⁹⁾ 물론 이들의 내적인 변화를 충동하는 외적인 변화도 청 왕조 지배자들의 치밀한 기획 아래 착실히 진행되어, 이미 『여선외사』가 창작될 18세기 무렵에는 ‘유민’의 존재마저 거의 덮어 버릴 정도에 이르러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의 작가인 여옹의 ‘유민’ 신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논자는 여옹이 명말에 태어나 청초에 죽었고, 청 왕조에 들어서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여러 분야에 걸친 깊은 지식을 갖춘 인재라는 점을 들어 ‘유민’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입증하려 하기도 했다.²⁰⁾ 물론 누구라도 ‘유민’으로서 여옹의 신분을 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이것은 외적인 조건만 따진 결과이다. 그가 부친의 유훈에 따라 청 왕조에서 출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라는 당부는 따르지 않고 우성룡 등의 막료로 활동한 것은 결국 간접적으로나마 청 왕조에 봉사한 셈이었다.²¹⁾ 『여선외사』의 창작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기간²²⁾에

19) 遺民들의 ‘入淸’과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는 趙園, 홍상훈 역 (2017)b, pp. 326-349를 참조할 것.

20) 程程國賦·楊劍兵 (2011), pp. 136-137 참조.

그가 많은 명사 및 고위 관료들과 교유했으리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이 작품이 간행될 당시에 서발序跋과 품제品題, 평론 등에 참여한 67명의 인물 가운데는 ‘유민’의 신분을 고수한 이들도 있었지만 왕사정王士禎(1634-1711)이나 송락宋犖(1634-1714), 유정기劉廷璣(1654-?), 홍승洪昇(1645-1704)과 같은 고관대작이나 명사, 그리고 ‘박학홍유博學鴻儒’로 천거된 교래喬萊(1642-1694)와 이정중李澄中(1629-1700) 등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청 왕조에서 벼슬살이하고 있던 이들이 스무 명이 넘는다.²³⁾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인물들이 ‘반청’의 뜻을 품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반청복명反淸復明’의 주제를 은밀히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 소설 작품에 주목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서발 등을 썼을 가능성도 거의 전무하다.

필자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류첸劉倩도 일찍이 『여선외사』의 ‘정치적 경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었다.²⁴⁾ 첫째, 청 왕조에서 출사하지 않은 것이 청 왕조에 반대하고 항고했다는 뜻은 아니고, 작가가 사상적으로 중시한 것은 ‘군신君臣

21) 呂熊은 康熙 21년(1682)부터 幕僚 생활을 시작하여 直隸巡撫 겸 河道總督 于成龍과 江西按察使 劉廷璣, 江西南安郡守 陳奕禧, 廣州知府 葉勇를 거치면서 康熙 50년(1711)까지 30년 가까이 幕僚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宋華燕(2019), p. 86 참조.

22) 『女仙外史』는 십여 년에 걸쳐서 창작되었는데, 1700년에 呂律이 于成龍의 官署를 떠나기 전에 적어도 85회까지 원고가 있었으며, 다시 1701년부터 1704년 사이에 改修와 補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704년에 탈고한 것으로 보인다. 楊梅(2006), p. 47 참조.

23) 이에 관해서는 楊梅(2006), pp. 11-34와 向芑(2010), pp. 235-236을 참조할 것. 한편 劉倩은 이들 評點家들이 이전의 다른 소설들에서 흔히 보이는 것과 같은 ‘假托’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증거로 (1)평점의 저자들이 자신의 字號를 썼고, (2)평점은 모두 책이 간행되기 전에 작자와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 나왔으며, (3)呂熊 본인의 豪傑의 性向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劉倩(2003), p. 79 참조.

24) 이하의 설명은 劉倩(2003), pp. 98-103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의 명분'이다. 둘째, 사론史論이 반드시 정론政論과 같은 것은 아니며, 소설에서 황궁을 탈출한 건문제가 승려로 꾸며 남방을 떠돈 것을 통해 독자들이 중국 동남부와 서남부를 전전했던 남명南明 정권을 떠올리는 것은 작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셋째, 『여선외사』가 나온 시대는 이미 유민 집단이 새로운 왕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가고 있었고, 비록 청 왕조에서 출사하지는 않았지만 여웅은 막료 신분으로 '은신隱身'한 채 지식과 책략을 바치는 형식으로 조정에 봉사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이유는 본고 제3장에서 서술할 필자의 견해와 연관이 있다.

'유민'은 그 정체성이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세대에 한정된 특수한 신분을 지닌 존재이다. 당연히 그들 사회에서도 개개인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여웅은 태어난 시점이 '명말'이라고는 하나 1642년은 명이 멸망하기 겨우 3년 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실상 왕조의 몰락에 대한 아무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그가 '유민'이었던 것은 부친의 유훈 때문이었겠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안정적인 청 왕조의 통치 아래에서 비교적 여유롭게 이루어졌다. 또 자발적으로 청 왕조의 관료를 위해 봉사하기도 했으니, 부친을 포함한 청초의 다른 유민들과는 의식 세계가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

2. 역사의 회고 — 반성 혹은 자기합리화

당연한 일이겠지만, 명 왕조가 망한 직후 한족漢族 사대부들은 통한과 비에 속에서 패망의 원인을 탐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행위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것은 학술과 역사를 회고하여 반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러한 반성 행위의 이면에는 청 왕조 초기 유민들이 처한 현실과 갖가지 '선택'들의 '불가피성'을 변호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었다. 명말·청초 사대부이자 '유민'이었던 이들의 '운명'에 대해 자오위안趙園은 이렇게 썼다.

학술과 문화의 기운과 국운, 세도世道の 오르내림은 성쇠를 거듭하고, 사대부의 운명은 바로 그 가운데에 있었다. 그리고 명나라 초기의 역사에서 그 운명은 건문제 사건과 같은 거대한 전환 속에 있었다. 사대부들에게 이것은 ‘미리 정해진’ 것으로서 어쩔 수 없는 ‘운명[命]’ 이자 ‘운수[數]’였다. 사대부들이 왕조 초기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운명’ — 나라와 세상, 사대부의 운명 — 을 탐구하고, 이후의 사태에 대한 해석을 찾고자 했던 것은 이 시기 언론계에서 열중했던 ‘재앙의 시작’을 거슬러 찾아내고 인과관계를 풀어내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황이었다.²⁵⁾

‘재앙의 시작’에 대한 탐구와 관련해서 당시 유민 사회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주제는 단연 연왕의 ‘정난’과 건문제의 ‘손국遜國’이었다. 왕조 교체가 에 처한 사대부들은 명 왕조의 멸망과 ‘건문제의 손국’ 사이에서 상황의 유사성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사이의 인과관계에 주목하기도 했다. 물론 ‘정난’과 ‘혁명革除’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역사 왜곡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명 왕조 중엽부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로 인해 만력萬曆 연간에는 건문제 때 충신들을 기록하고 남경에 사당을 지어 제사하게 했지만,²⁶⁾ 실제로 건문제와 당시의 충신들에게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는 일은 조정의 앞날이 위태롭기 그지없었던 남명 홍광弘光 연간(1644)에 이르러서야 실현되었다.²⁷⁾ 사실 ‘정난’에 대한 평가가 어떤 의미에서 지지부진 시간을 끌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정통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영락제永樂帝 이후의 명 황제들이 모두 그의 후손이라는 점은 ‘정통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게다가 건문제의 신하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제외하면 경제와 군사의 측면에서 모두

25) 趙園, 홍상훈 역 (2017)a, p. 404.

26) 『明史』 권125 「徐輝祖」, 권141 「方孝孺」, 권227 「宋儀望」 등의 기록을 참조.

27) 『明史』 권216 「顧錫疇」, 권278 「萬元吉」의 기록을 참조.

28) ‘正統性’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景泰 8년(1457)에 일어난 ‘奪門之變’ 또는 ‘南宮復辟’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좀 더 복잡한 ‘篡奪’의 논쟁거리를 품고 있는 이 문제를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는 곤란하다.

명 왕조의 위상을 높인 영락제의 치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기도 했다.

다만 명이 망한 뒤에는 건문제의 옛 신하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건문 연호까지 ‘혁제’해 버린 영락제의 처사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비판이 더 우세했던 듯하다. ‘강좌유민江左遺民’ 담천談遷(1594-1657)의 『국각國權』은 건문 연호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도 건문제의 입장에서 기록함으로써 ‘재앙의 시작’을 확인하고, 나아가 ‘고국故國’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정난’을 부정한 것은 영락제 이후의 황제들이 ‘정통’이 아닌 ‘찬탈자²⁹⁾’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명 왕조 240년의 역사 — 영락제가 즉위한 1403에서 송정제가 순국한 갑신년甲申年(1644)까지 — 를 찬탈한 군주와 그 후손의 통치 아래 생존해 왔던 사실 자체가 사대부들에게는 심각한 굴욕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굴욕은 ‘지독한 미움’을 통해 그들 스스로 다듬어 온 절조와 도덕의 개념에 대한 엄밀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만 ‘유민’의 입장에서 ‘정난’을 거론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잃은 것은 이미 ‘정통성’을 잃은 허위적인 왕조일 뿐이라는 일종의 ‘책임 회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전제가 성립한다면 그들은 망한 왕조의 ‘유민’에게 적용되는 당연한 ‘절조’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민족에 의한 왕조 교체가 벌어진 이후 수많은 ‘변절자’가 생겨난 것도 영락제가 ‘족멸族滅’의 폭거를 통해 충신의사의 ‘정기正氣’를 깎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왕부지王夫之(1619-1692)가 “영락제를 위해 나라를 도모한 신하”들이 “멸망의 재앙을 남겨 놓았다.³⁰⁾”라고 질책한 것도 단순히 ‘삼위

29) 永樂帝의 生母가 馬皇后가 아니라 碩妃라는 사실 또한 그의 ‘正統性’을 부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곤 했다.

30) 『讀通鑒論』 권24 “永樂謀國之臣，… 貽覆亡之禍。” 趙園, 홍상훈 역 (2017)a, pp. 401-402 재인용.

三衛³¹⁾’를 버린 것만을 두고 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책임 회피’는 왕조의 멸망과 교체를 모두 미리 정해진 ‘천명天命’과 ‘운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비록 유민은 아니었지만 저명한 사학가이자 문학가였던 전조망全祖望(1705-1755)조차 “하늘도 명 왕조를 싫어해서 성공하도록 도와주지 않았고,” “명 왕조 또한 스스로 하늘과 연을 끊어서 많은 계책이 모두 어긋나서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했으니,³²⁾ 어쩌면 이런 역사관은 청 왕조 초기의 한족 지식인들 사이에 상당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듯하다. 또 청초의 『두봉한화豆棚閑話』나 『수당연의隋唐演義』 같은 소설들도 모두 역사의 변천을 ‘천명’과 ‘천수’의 탓으로 돌렸으니, 이런 역사관이 소설 작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여웅의 『여선외사』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여웅이 ‘정난’을 소설의 주요 제재로 삼은 이유는 일반적인 ‘유민’들의 ‘책임 회피’와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여웅은 부친이나 동시대의 다른 ‘유민’들과는 의식 세계를 지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청 왕조의 존재를 인정해 버림으로써 ‘유민’ 신분을 확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건을 잃어버린 여웅으로서는 ‘고국’으로서 명 왕조를 그리워하거나 멸망을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 ‘정난’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 다른 ‘유민’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1) 洪武 22년(1389)에 북방의 兀良哈部落에 朮顏衛와 泰寧衛, 福餘衛까지 3개의 ‘衛’를 설치했다.

32) 全祖望, 『鮚埼亭集外編』 권4, 「明戶部右侍郎都察院右僉都御史贈戶部尙書崇明沈公神道碑銘」 “天亦厭明, 不佑其成…明亦自絕於天, 群策總屈而不施.” 全祖望(清), 編輯部 (2000), p. 803.

Ⅲ. 『여선외사』의 유민 의식

사실 『여선외사』에는 명말·청초의 복잡하고 ‘다원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정주이학과 봉건 통치에 대한 비판, 작자의 민족 사상과 정통 사상, 그리고 민주평등 관념까지 포함한 복잡한 내용이 두루 녹아 들어가 있으며,³³⁾ 거기에는 지식인들과 ‘유민’들 사이에 공유되었거나 유행했던 의식과 사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작품의 제목만 하더라도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여성 우월론을 즉시 떠올리게 만들 정도이다. 관방官方的 역사서에서 ‘요부妖婦’로 취급되었던 당새아는 이 소설의 실질적인 주인공으로서 역적을 토벌하는 여성 영웅이며,³⁴⁾ 역시 어지간한 남성보다 훨씬 뛰어난 여장女將들과 도고道姑, 심지어 검선劍仙과 여선女仙까지 포함된 여성 집단의 중심으로 형상화되어 있다.³⁵⁾ 게다가 그녀는 부처 및 노자와 나란한 지위에서 마도魔道를 주재하는 존재로 설정된 찰마공주刹魔公主³⁶⁾와도 의자매로 설정되어 있다. 또 본문에서는 명말·청초 ‘3대가’가 강조했던 ‘경세치용經世致用’ 사상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용은 정주이학을 중심으로 한 경학을 비판(제82회)하고, 과거제도의 개혁을 주장(제37회, 제82회)하며, 나아가 황제의 권력이 이미 정점에 달한 시대에 군주를 지나치게 높이고 신하를 지나치게 낮추는 군신 관계를 바로잡으려(제83회) 했다.

33) 王傑 (2014), p. 44 참조.

34) 劉鵬飛는 이러한 唐賽兒의 신분 변화는 전통 관념을 顛覆해서 여성에 대한 동정과 존중을 구현하려 한 작자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劉鵬飛 (2011)b, p. 19 참조.

35) 예를 들어서 程本慧는 「清代小說中的女性意識研究」(中南民族大學, 2011)에서 『여선외사』가 “陰勝于陽, 男遜于女”라는 性別意識 위에 역사적으로 중대한 임무를 唐賽兒를 우두머리로 하는 여러 사람과 신선, 혹은 魔의 신분을 지닌 女性에게 맡김으로써 女性群體의 가치에 대한 작자의 관심과 俗套에 빠지지 않은 女性觀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王傑 (2014), p. 10 참조.

36) 刹魔公主는 “正義와 邪惡의 결합체이자 아름다움[美麗]과 잔혹함[凶殘]의 결합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李劍國·陳洪 (2007), p. 1323.

그런데 작자의 신분이 명 왕조의 ‘유민’이라는 그다지 타당하지 않은 전제 때문에 『여선외사』는 종종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반청복명’의 유민 의식을 내포한 작품으로 읽히곤 한다.³⁷⁾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표된 적지 않은 논문들에 제시된 그런 결론은 상당 부분 논자의 주관적인 주장에 의해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필자의 이 진술이 『여선외사』에 유민의식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며, 그보다는 여용의 ‘창작 의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규명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여용이 『여선외사』에서 건문 연호를 실제 역사와 달리 26년까지 연장해 쓰면서 영락 연호를 없애 버린 부분에 대해, 논자들은 그것이 왕조 교체기에 명 왕실의 ‘용맥龍脈’이 보존되고 나아가 ‘광복光復’의 대업을 이루기 바라는 유민의식을 투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용의 이러한 소설적 구상이 실제로 담천의 『국각』과 곡응태谷應泰(1620-1690)의 『명사기사본말明史紀事本末』을 비롯한 유민들의 사학史學과 당시 유민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각종 야사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설령 건문제가 ‘정난’ 와중에 화재 속에서 죽었다는 『명사明史』의 기록이 사실일지라도, 그가 성을 빠져나와 망명한 것과 관련해서 민간의 풍부한 상상력이 가미된 야사들이 끊임없이 창작되고 전승된 데에는 언론 금제의 억압을 벗어나 ‘정당한 정통’을 확인하고 전승하려는 나름의 사명을 가진 논자들의 강력한 바람과 의지가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다.³⁸⁾ 민간의 상상과 야사의 서사는 종종 관련 기록을 담은 문헌이 없거나

37)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樊慶彦의 「論明清之際歷史小說的民族意識」과 趙世瑜의 「『女仙外史』初探」, 沈伯俊의 『明清小說鑑賞辭典』, 紀德君的 「明清歷史演義小說藝術論」 등이 모두 이 작품에 담긴 ‘反清’ 의도를 강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王傑 (2014), pp. 11-12 참조.

38) 潘樾章(1626-1663, 字는 聖木, 號는 力田)은 『國史考異』에서 胡濙(1375-1463: 字는 源潔, 號는 潔庵)이 파견된 일과 溥洽(1346-1426, 字는 南洲, 號는 迂叟)이 옥에 갇힌 일을 근거로 건문제가 죽지 않았다는 주장을 ‘증명’했으며, 심지어 건문제가 성을 빠져나간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상했다. 심지어 평소 객관

혹은 자세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서술된 부분을 채운다는 명목으로 창작되곤 했는데, 청초의 유민 학자들은 종종 그것을 의도적으로 역사 텍스트로 만들려 하거나 여웅과 같이 소설 창작에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정사正史뿐만 아니라 많은 야사에서 기록되거나 과장되었던, 충신의 사를 탄압하고 학살한 영락제의 행위가 ‘찬탈’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권을 잡은 청 왕조가 한족 사대부 계층에 대해 문자옥文字獄을 일으키고, 삭발령削髮令을 내리고, 복식服飾을 규제하는 등의 압제를 행한 일을 연상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는 현실의 통치제도를 풍자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24회에서는 유교 대신 마도를 칭송함으로써 무력하고 타락하여 위선적으로 변한 유교를 풍자하는 듯하다. 또 제31회에서 건문제의 충신 경청景淸이 죽어서 문곡성文曲星이 되어 천랑성天狼星의 만행을 고발했을 때 다른 신선들이 자기 벼슬을 지키기 위해 살계殺戒를 범하지 않으려고 복지부동할 때 마도 출신으로 정도正道에 귀의하여 24 제천諸天에 이름이 오른 귀모천존鬼母天尊만이 결연히 나서서 처벌을 주장한 장면은 『서유기西遊記』에서 천궁天宮의 신선들이 손오공의 참람僭濫을 제압하지 못한 채 자리보전에 전전공공하던 때에 태백금성太白金星이 화친의 사절로 나선 장면보다 더욱 조롱기가 짙은 풍자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제81회에서 찰마공주가 인仁과 의義, 예禮, 치恥, 신신을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 없애야 하는 (그러므로 결국 거의 없어진) ‘오적五賊’으로 지적하고, 나아가 지혜[智]란 ‘오관五官’을 운용하여 ‘오적’을 없애는 ‘도적의 왕’이라고 한 부분은 현실 통치제도의 타락상을 통렬히 꼬집는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필자는 이 작품의 창작 의도로 ‘반칭’ —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비칭批淸’이

적인 학술성을 중시하던 錢謙益조차도 왕조가 바뀐 뒤에 쓴 「建文年譜序」는 건문제가 ‘불에 타 죽지 않았고[不焚] 溥洽이 건문제의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혔으며[剃染]’ ‘노년에 아득히 먼 황야에 은거했고[老遜遐荒]’ ‘행각승으로 동냥한[頭陀乞食]’ 일 등등을 모두 ‘사실’로 간주하여 언급함으로써 건문제가 궁을 빠져나가 망명했다는 것과 관련된 야사와 전설을 거의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趙園, 홍상훈 역 (2017)a, p. 427 p. 431 참조.

되겠지만 — 을 넘어서 ‘복명’까지 강조하는 것은 여옹의 신분이 ‘유민’이라는 잘못된 전제가 낳은 착각이거나, 심지어 논자의 의도적인 시점視點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옹이 품고 있던 의식 세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가 생각했던 이른바 ‘정통’의 함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작품에 나타난 ‘정난’에 대한 평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제41회에 서술된 여옹呂律 — 대개 작자 자신을 ‘영사映射’한 등장인물이라고 여기는 — 과 연성공衍聖公의 대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무릇 천하는 태조 황제의 천하입니다. 연왕이 황제가 될 수 있다면 어느 변왕藩王인들 황제가 될 수 없겠습니까? 충신과 의사들은 모두 태조 황제의 신하들입니다. 충절을 지킨 이들을 죽일 수 있다면 누군들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정학正學 방효유方孝孺 선생께서는 ‘역적 연왕이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 공자께서 『춘추』를 쓰신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³⁹⁾

여기서 연성공의 입을 빌린 작자는 왕조의 ‘정통성’은 태조로부터 자연스럽게 승계된 황제의 계보를 통해 확보되는 것이고, 연왕이 저지른 ‘찬탈’은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 작품을 쓴 것도 공자가 『춘추』를 통해 포폄褒貶했던 것처럼 ‘정통성’의 보존과 연왕의 ‘혁명’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면서, 나아가 이를 통해 ‘포충극반’의 윤리를 널리 일깨우려는 목적임을 확인한다.⁴⁰⁾

39) “夫天下，高皇之天下也。燕藩可得而帝，何藩不可以爲帝乎？諸忠臣義士，高皇之臣子也。忠節者可殺，何人反不可殺乎？正學先生云‘燕賊反’，此即我夫子春秋之筆也，更有何說之辭。” 呂熊 (1711), 王巷人·劉承武 校點 (1995), p. 241.

40) 「古稀逸田叟呂熊文兆自敘」 “그러나 建文帝가 在位했던 네 해 동안 어진 風化가 넘쳤는데, 帝位를 잃자 깊은 산속의 아이들과 늙은이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수백 년 뒤에 태어난 내가 그에 관한 책을 읽고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을 考察해 보고 마음이 쓰리고 분노로 머리카락이 곤두서는지라 그에 관한 『外史』를 썼다.[然建文帝君臨四載，仁風洋溢，失位之日，深山童叟莫不涕下。熊生於數百年之後，讀其書，考其事，不禁心酸髮指，故爲之作外史.]” 呂熊 (1711), 編輯部 (1992), pp. 7-8.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작품의 제13회에 들어 있는 여율의 시 4편에 대한 어느 논자의 해석⁴¹⁾을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이 논자는 작자가 『영노중련詠魯仲連』에서는 자신의 ‘대명정통大明正統’의 주관을, 『영상산사호詠商山四皓』에서는 명 왕조의 부흥이라는 대업을 위해 힘쓰겠다는 신념을, 『영류후詠留侯』에서는 자신을 알아주는 현명한 군주를 만나서 ‘건공립업建功立業’하고자 하는 갈망을, 『영무후詠武侯』에서는 ‘진명천자眞命天子’를 위해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 바치겠다는 희망을 ‘암유暗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논자는 청 왕조 초기 유민의 시에서 진秦나라는 종종 청 왕조를 암시하고, 상산사호가 한漢 왕조의 정통을 지키려고 한 것은 사실상 명 왕조의 정통을 지키려는 의도이니, 그것은 송宋 왕조의 유민들이 종종 한나라 때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망한 송 왕조를 그리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⁴²⁾

그러나 진秦나라를 거부하고 주周나라를 받든 노중련이 추구한 이른바 ‘정통’을 반드시 ‘대명’과 청의 교체와 연관해서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고, 상산사호가 혜제惠帝를 모신 것을 칭송한 것도 그저 올바른 ‘정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도리를 강조한 것이지 딱히 명 왕조의 부흥을 얘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장량張良이 진시황秦始皇을 암살하려 했다가 실패하고 황석공黃石公에게 받은 천서天書를 익힌 것은 ‘정통’을 훼손하는 폭군을 제거하기에 부족함이 입증된 자신의 역량을 새롭게 키우려 한 노력에 가깝다고 풀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건공립업’의 갈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당새아 즉 월군月君을 비롯한 이 작품의 충신지사들은 건문제를 ‘호위[勤王]’하기 위해 기의했을 뿐 새로운 왕조를 창업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1) 王曉明 (2014), pp. 87-88 참조.

42) “ … 如魯仲連義不帝秦的典故明显有‘義不帝清’之意，因爲在清初遺民詩詞中‘秦’多暗指‘清’，而關於商山四皓、張良、諸葛亮的典故又都與維護漢朝正統有關，此又暗示我們作者有維護明朝正統之意， 猶如宋遺民常常利用漢代故事表達自己的故宋情懷一樣。” 程國賦·楊劍兵 (2011), p. 140.

다만 마지막으로 칭송한 제갈량의 경우는 상황이 무척 미묘하고 복잡하다. 이것을 천하 통일이 불가능함을 알고 미흡하나마 삼국정립三國鼎立을 추구한 제갈량의 모습을 대륙의 한 귀퉁이에서 ‘편안偏安’을 추구한 남명 정권 — 어쨌든 ‘진명천자’의 후손으로 인정한다면 — 에서나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보고 싶은 작자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청 왕조에서 벼슬살이하지 말고 의업으로 생계를 꾸리라고 한 부친의 유언을 어기는 일은 아닐 것이고, 또 여율이라는 등장인물에 투영된 여웅 자신은 병법과 천하경영의 재능을 두루 겸비했기 때문에 이런 추론이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는 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여선외사』가 완성되기 전에 남명 정권은 이미 마지막 불씨까지 모두 꺼진 상태였다는 사실이다. 1662년에 영력제永曆帝 주유량朱由榔(1623-1662)과 태자 주자훤朱慈煊(1648-1662)이 곤명昆明에서 오삼계吳三桂(1612-1678)에게 피살됨으로써 주씨朱氏의 정통은 실질적으로 끊어졌고, 1683년에 청군淸軍이 대만臺灣을 점령하자 연평왕延平王 정극상鄭克塽(1670-1707)이 투항하고 영정왕寧靖王 주술계朱術桂(1617-1683)가 자살함으로써 명 왕조는 그야말로 완전한 종언終焉을 고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갈량에 비견되는 식견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여율(즉 작자 여웅)이 새로운 ‘편안’을 추구했다고 설정하는 것은 무리한 추측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여선외사』의 결말은 월군의 백일승천白日昇天과 제남濟南 정권의 해산, 건문제의 복위復位 대신 건문제가 천자의 재목으로 인정한 영락제의 아들 주고치朱高熾가 대를 이어 즉위해서 인종仁宗 홍희제洪熙帝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왕이 이미 유목천榆木川에서 붕어했으니 영구를 실은 수레가 거용관居庸關을 들어오면 발상發喪하라는 것이었다. 태자는 그날 등극했으니, 그가 바로 인종 황제이다. 인종은 연호를 홍희로 정하고 천하에 대대적으로 사면을 베풀었으며 아울러 은혜를 베푸는 조서를 반포했다. 건문제 때의 충신외사 가운데 이미 작위와 시호를 추증받은 이들은 모두 그날부터 직위에 알맞은 특전이 주어졌다. (……) 이때부터 천하의 백성은 모두 마음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순복했다. 당시 초楚 땅에 있던 건문제는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하여 잘해 낼 수 있겠구나. 천하가 태평하기만 하다면 짐이 어전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는 마음껏 산수를 즐기며 소요할 수 있었다. 또 16년이 흘러서 영종英宗의 정통正統 5년(1440)이 되자 조정에서는 벌써 황제가 네 명이나 바뀌었고, 건문제도 예순네 살이 되었다. (……) 영종은 건문제를 황궁으로 맞아들여 손자의 예로 절을 올리며 ‘태상노불太上老佛’이라고 불렀다.⁴³⁾

건문제를 맞이해 복위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월군이 제남에 궁궐을 세우고 법령과 의례를 정비한 일련의 조치들은 사실상 ‘창업’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지만 ‘갑수劫數’의 기한이 끝나자, 그렇지 않아도 세속적인 일들은 모두 군사 여율에게 일임하고 있던 월군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떠나 버린다. 이어서 여율은 은거하여 전생前生에 행하던 수행을 계속하고, 제남 궁궐에 있던 신하들과 장수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죽음을 맞는다. 아무리 작자의 운명론적인 역사관으로 인한 결과라고 해도 이런 줄거리 설정은 언뜻 보기에 황당하고 허무하게 여겨질 법하다.⁴⁴⁾ 하지만 그 와중에서

43) 『여선외사』 제100회 부분. 『女仙外史』 제100회 “忽接密詔：駕已崩於榆木川，直待靈車進了居庸關，然後發喪。太子即日登基，是爲仁宗皇帝，建號洪熙元年，大赦天下，並頒恩詔。凡建文時忠臣義士已經誥贈爵諡者，悉循當日恤典…自此四海人民心悅誠服。時建文帝行在楚中，聞之，曰：此子可謂幹父之蠱也。但要天下太平，如朕臨軒，夫復何慮。於是得逍遙於山水。又十六載，爲英宗正統五年，朝中已歷四世，帝年六十有四…(英宗)迎入大內，以兒孫禮拜見，稱爲太上老佛。” 呂熊 (1711), 王巷人·劉承武校點 (1995), pp. 555-557.

44) 이러한 결말에 대해 劉鵬飛는 1)역사의 사실 자체가 그러했고 2)‘天命’을 내세운 작자의 歷史觀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劉鵬飛 (2011)b, pp. 33-35 참조.

도 작품 전체를 관통하며 암중에 깔린 건문제의 존재로 인해 이런 서술은 절묘한 합리성을 획득한다. 건문 26년까지 허구적으로 설정된 연호를 바탕으로 줄거리가 이어지는 것 외에 작품 본문에서는 건문제의 행적과 언행에 대해 직접 서술된 부분이 대단히 적음에도, 건문제는 작품의 마지막 회까지 지속적으로 존재의 그림자를 비치면서 ‘정통’의 상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는 명분상으로 월군과 제남 정권의 존재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고, 선계仙界가 아닌 인간 세계에서 왕조의 ‘정통성’을 지켜 전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여웅이 생각하는 ‘정통’의 실체가 확인된다. 언뜻 보기에 ‘연적燕賊⁴⁵⁾’의 ‘정난’은 ‘정통’의 훼손이라는 의미에서 만주족의 청 왕조가 한족의 명 왕조를 멸망시키고 제위를 ‘찬탈’한 것과 동일시되기 쉽다. 그러나 이야기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뜻밖의 반전을 발견하게 된다. 앞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웅은 연왕의 ‘찬탈’이 그의 죽음과 더불어 끝났을 때, 명 왕조의 대를 이은 인종이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혈통 때문이 아니라고 확인한다. 그보다 그가 주목한 것은 태조 주원장朱元璋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제위를 계승했으며, 재위 기간에 별다른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고 심지어 ‘인군仁君’으로 칭송받기까지 했던 건문제가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인종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제위를 물려주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인종의 즉위가 강압에 의한 ‘손국’이 아니라 ‘암묵적인 선양禪讓’에 의한 결과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해명은 여웅의 ‘유민’ 정신이 적어도 이 작품을 완성할 무렵에는 이미 그 흔적이 흐려져서 청 왕조의 통치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러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1684년 이후로 강희제康熙帝는 남순南巡을 거행할 때마다 남경에서 명 태조의 무덤인 효릉孝陵을 참배하고 친히 제사를 올리는 행사를 거르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명 왕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계승자임을

45) 이 작품에서 무려 38곳에 걸쳐서 燕王을 ‘燕賊’으로 칭한 사실은 여러 연구자가 자주 강조한 사실이다.

선언했는데,⁴⁶⁾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암묵적인 선양’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여선외사』의 결말은 당시 청 왕조의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이렇게 보면 여옹이 작품 속에서 누차 강조한 충신의사와 절열부녀節烈婦女에 대한 칭송 또한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선외사』 제46회에서는 총 97명의 충의지사忠義之士에게 시호를 추증하고,⁴⁷⁾ 제100회에서는 충신의 모친과 아내, 딸 등 40명의 절열자節烈者에게 의열義烈이니 효열孝烈이니 하는 등등의 봉호封號를 추증한다. 일반적으로 ‘유민’의 ‘반청’ 감정을 중시하는 논자들은 이러한 ‘추증’과 ‘추시追諡’ 행위들이 건문제의 충신들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청초의 ‘반청복명’ 인사에 대한 은밀한 칭송이라고 설명하곤 한다.⁴⁸⁾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옹이 칭송한 것은 그 나름대로 정의한 ‘정통’에 대해 ‘충효’와 ‘절의’라는 유가 윤리를 목숨으로 지킨 이들일 뿐임을 알 수 있다.⁴⁹⁾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작자가 청 왕조에 대해 ‘이민족에 의한 찬탈’이라고 규정했다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독자들은 이들의 충절에 대한 칭송을 ‘반청복명’에 대한 갈망과 관련지를 아무런 명분이 없다. 그보다 작자는 오히려 이런 서술을 통해, 아무리 소설 창작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역사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자신의 분노와 동정, 비판, 칭송 등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나타냈다고 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⁵⁰⁾

46) 이에 관한 논의는 梅爾清·朱修春 (2005), p. 109 참조.

47) 구체적으로 이들은 方孝孺와 景清, 鐵鉉 등 51명의 ‘殉難諸臣’과 王叔英과 張安國, 曾鳳韶 등 29명의 ‘殉節諸臣’, 그리고 瞿能과 張自旗, 宋忠 등 17명의 ‘전사한 장수[陣亡將領]’이다.

48) 王曉明 (2014), p. 88 참조.

49) 楊顯의 「評論」에서는 이 작품의 “立言之趣旨가 綱常을 부축해 세우고 忠烈을 드러내 讚揚하는 것[立言之旨, 在于扶植綱常, 顯揚忠烈]”이라고 했다. 楊劍兵(2012), p. 102 재인용.

50) “呂熊在創作時, 面對無法改變的歷史與現實, 只能無奈地接受, 但仍然表達着自己的憤懣與同情、貶斥與褒揚等複雜情感.” 程國賦·楊劍兵 (2011), p. 139.

결국 여옹이 제시하는 ‘정통’은 유가 특유의 충효론에 입각한 국가관을 지향하며, 이것은 혈통이나 민족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가 보기에 작자의 재능과 학식을 과시하는 것 외에 『여선외사』의 또 다른 창작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국가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통’을 계승한 청 왕조 — 에 속한 신민臣民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로서 이른바 ‘포충극반’의 윤리를 효율적으로 선전하려는 것이다.⁵¹⁾ 아울러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작품의 제83회와 제84회에서 여옹과 고향녕高咸寧의 입을 빌려서 의례와 부역賦役, 상벌 등을 포함한 ‘민본民本’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제시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은 여옹 자신의 ‘재학才學’을 자랑하면서 결국 그가 청이라는 새로운 왕조에 바라는 바를 토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²⁾ 소설 『여선외사』에서 여옹이 제시하는 새로운 왕조[청淸]는 ‘선양’을 통해 ‘정통’을 확보했으나, 이제 자신이 ‘제남 정권’이라는 가상의 정권을 통해 보여준 이상적 모델에 따라 군주와 신민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사는 나라였던 셈이다.

이 작품에 대해 당시의 사회적 명사나 고위 관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도 결국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여옹이 제시하는 주제가 반항적인 ‘반청복명’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청 왕조의 체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한족 출신으로서 만주족 황실에 순종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변호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수도

한편 王傑은 이 작품을 창작한 呂熊의 ‘多元的’인 심리상태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發憤과 逞才, 帝王師, 女性崇拜, 遺民意識을 거론했다. 王傑 (2014), pp. 18-22 참조.

51) 張強 (1991), p. 187 참조.

52) 아울러 이것은 결과적으로 ‘懷才不遇’의 삶 속에서 자신의 心事를 풀고, 나아가 거의 모든 士大夫가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잊지 못했던 ‘帝王의 스승’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소설에서 月君의 신분이 ‘帝師’였다는 설정도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일 터이다. 다만 인간 세계의 황제인 建文帝와 ‘金仙’인 月君은 엄격히 말하자면 君臣 관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呂律이라는 代理人이 필요했을 뿐이다.

있다.⁵³⁾ 당연히 이것은 여용의 유민의식이 이미 결사 항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기 부친 세대와는 달리 ‘천명’의 의한 왕조 교체의 운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희석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작품의 제4회에 나타난 석도사 席道士와 요광효 姚廣孝의 대화에 따르면, 건문제가 어진 정치를 행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고 연왕이 포획한 내전을 일으킨 것은 잘못임이 분명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늘에서 예정된 ‘살운 殺運’에 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건이었다.

IV. 나가는 말

연왕과 당새아 사이의 싸움을 천랑성 天狼星과 항아 嫦娥 사이 갈등의 연장선으로 ‘환화 幻化’시킨 이 작품은 정난에 대한 평가와 명말·청초 유민으로서 작가가 구상한 이상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장황한 논의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작품성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작품은 마도 魔道와 선도 仙道, 불교의 신비로운 술법을 겨루는 싸움에서는 『서유기』와 같은 전형적인 신마소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군대 간의 대규모 전투에서는 『삼국지연의 三國志演義』의 각종 병법을 흉내 낸 데에 지나지 않고, 인물 묘사⁵⁴⁾ 또한 발전성이 없다고

53) 그러나 작품 곳곳에서 이른바 ‘貳臣’ 즉 變節한 신하들에 대해 혹독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평론에 참여한 고위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善意의 誤解’일 가능성도 있다. 楊鍾賢은 이 작품에 활용된 ‘障眼法’에 주목하면서 작자의 실제 의도는 역사 제재를 활용하여 현실의 興亡에 대한 감회를 서술한 것이라고 했다. 거기에는 故國 明 왕조의 멸망과 民族의 衰落에 대한 悲哀와 왕조 교체기에 저항했던 民族志士에 대한 칭송이 담겨 있고, ‘중화민족으로서 오랑캐에 의해 변질된[以夏變於夷] 敗類를 문학적으로 誅伐하려는 뜻도 있다고 했다. 劉葉秋 외 (1998), p. 739 참조.

54) 『여선외사』의 인물 묘사가 미흡하다는 주장은 張強의 「論『女仙外史』藝術上的選擇」 이래로 큰 변화가 없이 답습되고 있다. 다만 宋華燕은 오히려 이 작품의 인물 묘사가 비교적 ‘적당한 수준에 도달到位’했다고 평가했다. 宋華燕 (2019), p. 89 참조.

혹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 역시 『삼보태감서양기 三寶太監西洋記』와 함께 ‘4대 기서奇書’ 내지 ‘6대 기서’ 위주로 서술된 명·청 장편소설 역사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작품임이 분명하다.⁵⁵⁾ 특히 『여선외사』는 정통 사대부의 입장에서 민간문학의 대표적인 양식 가운데 하나인 소설을 어떻게 수용했고, 그것이 이후의 이른바 ‘재학소설才學小說’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논자에 의해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작자의 ‘평생 학문’을 담은 이 작품에 다양한 논의의 소재가 포함되어 있음은 당연한 일일 터이다. 청 왕조 초기에 들어서 많은 사대부-문인이 소설 창작과 비평에 관여한 것은 중국 고전문학사에서조차 독특한 현상인데,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 ‘유망한 사업’으로서 소설이 ‘독자-소비자’의 요구에 영합하여 흥미로운 줄거리 서술과 선정적인 묘사만 추구하던 폐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종의 ‘고급 지식인’으로서 사대부-문인이 소설이라는 통속문학 양식을 자신의 학식과 문장력, 나아가 ‘제세濟世’의 이상을 토로하는 장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소설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의 수준을 끌어올린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주제와 창작 의도에 관해 현대의 연구자들은 대개 연왕의 ‘혁명’ 이후에 진행된 역사 왜곡 및 충의지사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발분發憤과 ‘유민’으로서 작가 여옹이 품고 있던 ‘반청복명’의 염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필자는 해석의 ‘다원성’을 고려하면 작가가 협소한 의미의 ‘반청복명’을 은밀히 선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청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전제 위에 보편적인 의미의 ‘포충극반褒忠殛叛’이라는 유가 윤리를 선양宣揚하려 했다고 하는 편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비록 동치同治

55) 여기에는 이른바 ‘才子佳人小說’과 ‘艷情小說’도 포함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잠시 논외로 한다. 한편, 端木蕻良은 『紅樓夢』이 『女仙外史』의 영향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기도 했다. 端木蕻良 (1980), pp. 60-72.

7년(1868)에 정일창丁日昌(1823-1882)에 의해 ‘음사소설淫詞小說’로 낙인이 찍혀 금서禁書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이 작품이 일시적이거나 많은 저명인사와 고관대작들에게 환영받았던 이유도 이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전반적인 예술적 성취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선외사』에는 작자 여용 개인의 독특한 역사관과 종교관, 여성관, 학술관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서 탐구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본고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여선외사』에 대한 연구는 최근 2, 30년에야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서유기』를 비롯한 여타 신마소설 및 『삼국지연의』, 『수호전水滸傳』 등 다른 작품과 비교 연구⁵⁶⁾도 거의 고스란히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흡하지만 본고는 이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심화 연구를 위한 작은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56) 王守亮(2018)과 楊劍兵·郁玉英(2014)는 이 분야의 초보적인 시도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趙園 (2006), 홍상훈 (2017)a, 『증오의 시대—명청 교체기 사대부 연구 1』, 서울: 글항아리.
- 趙園 (2006), 홍상훈 (2017)b, 『생존의 시대—명청 교체기 사대부 연구 2』, 서울: 글항아리.
- 端木蕻良 (1980), 「『紅樓夢』與『女仙外史』」, 『西北大學學報』 第2期: 60-62.
- 杜貴晨 (1995), 「『女仙外史』의顯與晦」, 『文學遺產』, 제2기: 117-118.
- 呂熊 (1711), 編輯部 (1992), 『新刻逸田叟女仙外史大奇書』, 『古本小說集成』(影印康熙間鈞璜軒刊本, 復旦大學圖書館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呂熊 (1711), 王荅人·劉承武 校點 (1995), 『女仙外史』, 濟南: 齊魯書社.
- 梅爾清 (2005), 朱修春 (2005), 『《清初揚州文化》』,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向芑 (2010), 「『女仙外史』評點探微」, 『明清小說研究』, 2010년 제4기 總第98期: 234-240.
- 宋華燕 (2019), 「呂熊『女仙外史』與士人游幕」, 『殷都學刊』 第1기: 85-90.
- 楊劍兵 (2012), 「論『女仙外史』的評點特色」,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 第39권 제4기: 102-105.
- 楊劍兵·郁玉英 (2014), 「論『女仙外史』對『三國志演義』的接受」, 『內江師範學院學報』, 第29권 제9기: 7-12.
- 楊梅 (2006), 「呂熊與『女仙外史』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論文.
- 王傑 (2014), 「多元化特徵視角下『女仙外史』研究」, 華東交通大學 碩士論文.
- 王守亮 (2018), 「『水滸傳』與『女仙外史』比較三題」, 『濟寧學院學報』 第39권 제3기: 25-28.
- 王曉明 (2014), 「『女仙外史』版本·成書及其思想內涵」, 『唐山學院學報』 第27권 제5기: 85-88.
- 劉鵬飛 (2009), 「『女仙外史』的天命觀及其成因」, 『賀州學院學報』, 第25권 제3기: 43-46.
- 劉鵬飛 (2011)a, 「論『女仙外史』的女性觀」, 『陝西理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29권 제1기: 65-68.

- 劉鵬飛 (2011)b, 「靖難之役的另類書寫—『女仙外史』研究」, 陝西理工學院 碩士論文.
- 劉葉秋 외 3인 主編 (1998), 『中國古典小說大辭典』,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 劉倩 (2003), 『靖難及其文學重寫』, 中國社會科學院 博士論文.
- 李夢生 (1994), 『中國禁毀小說百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李劍國·陳洪 (2007), 『中國小說通史·清代卷』,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 張強 (1991), 「論『女仙外史』藝術上的選擇」, J.cnki. 32-1017, 186-192.
- 張廷玉 等 (1739), 編輯部 (1974), 『明史』, 北京: 中華書局.
- 全祖望(清), 編輯部 (2000), 『全祖望集彙校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程國賦·楊劍兵 (2011), 「呂熊及其『女仙外史』新論」,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40권 제1기: 136-142.
- 黃宗羲(清), 編輯部 (1985), 『黃宗羲全集』,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Abstract

The Consciousness of a ruined dynasty people in nüxian-waishi女仙外史

Hong, Sang-Hoon

The Nüxian waishi女仙外史 by Lüxiong呂熊 is a fictional mixture of two events—the treason in the name of jingnan靖難 the cleaning up the petty vassals of the empire in 1399-1402 and the peasant revolt red by a heroine Tangsaier唐塞兒 at Shandong山東 in 1420. The author Lüxiong known as a yimin遺民 the member of a of a ruined Ming明 dynasty people describe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ides, defining jingnan as a traitorous takeover of the Throne, but praising the Tang's group as loyal and righteous. He also added entertainment elements such as mythical imagination and the Taoist magic to the narrative description, and again showed off his caixue才學 the 'talent and learning' encompassing astronomy and geography, military law, medicine and jingxue經學 the knowledge of Confucian scriptures etc.

Many modern commentators explain that the theme of this work reflects the national ethics of praising loyal subjects and punishing traitors and the yimin's general desire to oppose the Qing清 Dynasty and restore the Ming Dynasty. But in my opinion, it is pointless to seek any consciousness of yimin from Lüxiong, as he was already a chenmin臣民 the people of the Qing Dynasty, although he did not serve a government post in accordance with his father's will. This work, therefore, should also be viewed as presenting a kind of ideal model formed on the basis of the author's extensive knowledge for the peaceful and rich rule of the Qing Dynasty.

【Keywords】 Nüxian Waishi女仙外史, Yimin遺民, Jingnan靖難,
Lüxiong呂熊, Tangsaier唐塞兒, Jianwen建文

논문 투고일: 2019. 08. 14

심사 완료일: 2019. 10. 08

게재 확정일: 2019. 10. 08

